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예수님과 한 시간 깨어있기 성경: 마태복음 26장 36-46절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43 다시 오사 보산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 26:36-46)

오늘은 종려주일.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사람들은 호산나(구원을 염원하는 소리, 구원의 기쁨을 외치는 소

리, 야호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만세) 외치며 예수님을 맞았다. 엄청난 기대감을 표현하였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는 않으셨다. (민중봉기, 군사적 행동, 정치적 행동 없음.)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등, 사람들이 기대했던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게 낫겠다고 결의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민중들이어서 유월절이 지나간 다음에 죽이기로 함.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는 등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 틈을 타기 시작.

-계산이 빠른 가롯 유다는 뭔가 일이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간 꼭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대는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다윗 시대의 도래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시대의 도래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회복에서 가능하게 되는 내용들이었다.

-유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또 대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의 음모 등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교회를 박해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만약 온 이스라엘이 호산나를 외치던 분위기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왕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등이 보다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정치적인 독립과 다윗 시대의 도래를 꿈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얼추 맞아 떨어지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번져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에서 우리가 살펴 볼 수 있었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듯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급히 실망하고 심지어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믿음을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원망을 선택할 때 마귀의 도구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으며, 그 나라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잊지 말자.

-원망과 소망이 사라진 가롯 유다의 마음을 마귀는 노략했다.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배반하는 마음을 집어넣음.(마귀는 유다나 대 제사장들에게서 자신의 악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더라면 틀림 없이 빌라도의 마음을 노략했을 것이다.)

-유다는 즉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음모를 꾸밈.

-마귀는 대제사장들에게 선량한 민중들이 아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법한 자나, 불량스러운 자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집어넣음.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미리 하기 원하심.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함.)

-철모르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리다툼을 벌임. 예수님은 십자가 형에 대한 부담감에 더하여 제자들의 철없는 행동,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충동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부담감이 더욱 커지심.

-세족식, 배신에 대한 언급, 제자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베드로, 거기에 모두 동의하는 제자들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심.

-다른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더 멀리까지 따라오라 하시고, 그들은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하심.

-그리고 돌 던질만큼 더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 하심.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심. 고민이 크셔서 거의 죽게 될 정도가 되심. 이 순간 이미 전체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크셨고, 그 짐이 가장 큰 짐이 되셨을 것이다.

-단순히 십자가형에 대한 부담만은 아니셨을 것이다.

-자칫 칼부림이 나면서 제자들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몇 제자들은 실제로 열심당원으로 독립투사와 같았다. 도마나 빌립은 전혀 영적이지도 않았다.

-대 제사장은 12명의 제자들과 칼싸움이 났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력을 준비하였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제자들에게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원하셨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며 사태를 대비하기를 원하심.

-그러나 그들은 한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음. 피곤함.

-예수님은 다는 아니더라도 세 사람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심.

-가장 가까이 있을 세사람. 그러나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깨어있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 몫의 기도를 하실 수 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더 피곤하실 수 밖에 없었다.

-이 주간은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자.

-쾌락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듯이, 쾌락을 추구하다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 쾌락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된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난이나 부요함이나 모든 조건을 떠나서 쾌락만을 추구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

지 사명을 망각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을 원하신게 아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은가? 영생복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삶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빈약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예수님과 한 시간 깨어 있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제자중 형제 3쌍,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순교자)와 요한, 알패오의 아들 마태와 야고보(예루살렘회의 장)

<찬양예배>

주제: 제목: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배려 말씀: 누가복음
22장 54-62절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
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
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눅22:54-62)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성경에 자주 등장함.

-최초의 신앙고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메시아), 살아계신 하
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
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 베드로.

-그러나 성경 곳곳에 베드로는 실수하는 장면이 등장.

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들을 때, 아니되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풍랑이 일어날 때 빠져 들어갔다. -믿음이 없진 않는데 부족하였다.
3. 발을 씻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목욕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는 베드로. 생각좀 하고 말해야 하는데 말부터 앞서는 베드로. 엉뚱한 말 때문에 필요없는 행동을 많이 해야 하는 베드로.
4. 오늘 본문도 사실은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데 대제사장의 뜰까지 왔다.
-말 가지고 실수하는 베드로, 오늘 말 때문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부끄러움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사건은 그러므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에 해당하는 사건이 된다. 제대로 코치하시는 예수님.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더니 단단히 혼줄이 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리를 찾기 원하셨다.

-베드로의 힘을 빼시는 예수님. 힘이 빠지면서 좋은 것도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엉뚱한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엉뚱한 힘이 빠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쩔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가 천방지축 엉뚱한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된다.

-오직 순종이 사명을 감당케 한다.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깨우치자.